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ing Stress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안 지 영**
Dep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Instructor : Ahn, Jee-You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mother's perceptions on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275 mothers of preschool-age children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birth order of the child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mother.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ing stress were related to each variable.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development and achievement pressure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주요어(Key Words) :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child development perceptions), 성취압력(achievement pressure),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Ⅰ. 서 론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하루의 일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준다고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주요한 생활사건의 측면보다 부모의 심리적 적응 및 자녀와의 관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한 관련 변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양육 스트레스는 주로 부모 자신의 특성, 유아의 특성,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자녀의 특성에 관한 변인들 가운데 자녀의 연령은 영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기보다 높은 경향으로 나타난다(송연숙 · 김영주, 2008; 엄선희, 1999; 유우영 등, 1998). 한편, 7세 자녀의 어머니의 경우에 5, 6세 자녀의 어머니 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조경순, 1996; 엄선희, 1999에서 재인용), 만 5세의 부모가 만 4세 자녀의 부모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홍희란, 2002)가 있다.

*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1-CA0086)에 의한 연구(안지영, 2003)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일부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안지영 (E-mail : ahnjy@sewc.ac.kr)

이에 비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박혜미, 1994). 자녀의 성별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어머니는 딸보다는 아들을 양육할 때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이에 비해, 자녀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박혜미, 1994; 정지연, 2002). 자녀수나 형제 유무를 살펴본 연구에서 형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가 외동 자녀의 부모 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결과(홍희란, 2002)가 있는 한편, 자녀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보고된다(정지연, 2002).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아동의 어머니가 외동이나 둘째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송미혜, 2006).

어머니 특성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성향(박성옥, 1997), 자아분화, 결혼만족, 남편의 지지, 부모역할 만족도(전춘애 · 박성연, 1998)등의 어머니 개인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변인도 양육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되었는데,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죄책감(강희경 · 조복희, 1999)과 취업모로서 역할이 과중됨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1998; 전춘애 등, 1998; 홍희란, 2002). 이에 비해, 걸음마기와 유아기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업주부 어머니는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일상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보고된다(송미혜, 2006; 안지영, 2001).

한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Stress Model)에 의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cognitive appraisal)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 인지적 변인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가 스트레스를 평가하거나 대처자원의 활용을 결정하는 등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신념체계나 인지적 측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목표나 가치관,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각, 평가, 기대 등 다양한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부모의 신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cGillicuddy-De Lisi (1985)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발달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일생동안 만들어간다. 이러한 개념은 다른 사람 또는 사회로부터 배우거나 개인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나 아이를 관찰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녀에 대해 다양한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Goodnow, 1984).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이 아동의 능력을 지각한 바에 따라 어떤 과제를 제공하거나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부모의 지각을 전달한다(Parsons et al., 1982; 박성희, 1987에서 재인용).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행동을 예측하고 부모의 행동을 지도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상을 통해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측면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체나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몇 연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이병림, 1988; Goodnow, 1984), 출생 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 경제적 지위(박성희, 1987)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는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Mash & Johnston, 1990; 정지연, 2002에서 재인용),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McGillicuddy-De Lisi, 1985). 또, 유아기 자녀가 타고난 기질적 성향 때문에 또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정지연, 2002; Mash & Johnston, 1983).

이상을 통해, 부모는 관찰을 통해 자녀가 어떤 영역에 강점을 보이는지 알게 되며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발달이 빠른지 또는 느린지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의 지각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하는데(강희경, 2003; 신숙재, 1997),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서 학업 성취를 강조하며 과도한 경쟁과 다른 아이와 쉽게 비교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내용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성취 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이나 교육에 대해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 압력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기술을 갖추고, 앞으로 자녀가 학업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압력이라는 개념에는 개인으로 하여금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촉진적이거나 장애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Murray, 1938; 노정애, 1994에서 재인용). 한 사람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에게는 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다. 즉 자녀의 학업 성적, 석차, 가정학습 상태, 과제 확인, 시험 준비 등의 과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심리가 자녀 양육에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박수자, 1996).

성취압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과도한 성취압력은 자녀가 불안을 경험하는 등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정애, 1994). 또한,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으나 사회적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다(노정애, 1994; 류연자, 1995).

한편,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구결과 어머니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김혁곤, 2002; 홍은자, 2001).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어머니가 자신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안지영, 2003; 유주영, 2007).

이상의 내용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성취압력 변인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이 양육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며, 이 변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성취압력 그리고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 각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들이 더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과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며, 각 변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이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 성취압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3>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성취압력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6세 자녀를 둔 275명의 어머니들로,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유치원에서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46명(53.3%) 여아가 128명(46.4%) 이었고 평균 연령은 5.25세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1.5%로 높은 편이며, 월 평균수입은 32.1%의 가정이 250만원에서 350만원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중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의 PSI(Parenting Stress Index, 1990)와 Crnic 등의 PDH(Parenting Daily Hassles, 1990) 문항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외국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요인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총 36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 및 요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제 1요인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을 포함하는 10문항이다. 제 2요인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내용의 7개의 문항이다. 제 3요인은 '학습관련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9개 문항이 포함되며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어려움과 학습지도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됨을 의미하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α= .67~.80에 해당된다.

2)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표 1> 연구 변인들의 문항 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문항 수	신뢰도	평 균	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10	.80	2.33	.58
자녀와의 관계	7	.67	2.50	.47
학습관련	9	.68	2.66	.53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6	.63	3.36	.54
성취압력	20	.76	3.26	.58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한 유아 평가는 유아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김명희 · 신화식, 2001), 전문가를 통해 타당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대해 8문항을 구성하였다. 발달 영역에 대한 자녀의 발달이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또래와 비교할 때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이 늦다 또는 빠르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우리 아이는 신체 운동 영역에서 강점을 보인다.", "우리 아이는 또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발달이 빠른 편이다." 등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발달 영역에서 자녀가 강점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를 통해 2개 문항을 제외하였고 총 6문항의 신뢰도는 α= .63이다.

3) 어머니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관한 문항은 '어머니의 성취압력 검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은자(2001)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성취압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한 후,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문항 예: '나는 자녀가 친구들 때문에 학원시간을 어기는 것이 싫다', '나는 자녀에게 공부에 대해 잔소리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5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문항의 신뢰도는 α= .76 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예비 조사과정을 거쳐 각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척도의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유치원에서 만 4~6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미완성이거나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총 27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 도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결정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실시한 변인들의 신뢰도와 평균 및 표준 편차 등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Ⅲ. 연구 결과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 성취압력 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 성취압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운데 유의한 변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분석결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자녀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변인이었다. 먼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순위를 외동이, 첫째, 둘째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되듯이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차원 가운데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총점에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 일원변량분석 및 추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자녀의 어머니 경우에 외동이나 둘째 이하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기질이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동이, 둘째이하 자녀의 어머니 순서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표 2>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특 성	구분(N)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학습관련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총점	
		M	*SD*	*M*	*SD*	*M*	*SD*	*M*	*SD*
자녀 출생순위	외동이 (53)	2.24[a]	.52	2.37[a]	.46	2.73	.90	2.46[a]	.50
	첫째 (115)	2.58[b]	.58	2.58[b]	.45	2.75	.51	2.61[b]	.41
	둘째이하 (105)	2.20[a]	.59	2.47[a]	.49	2.58	.59	2.41[a]	.42
F		8.29***		3.89*		2.15 (n.s)		5.72**	

*$p<.05$, **$p<.01$, ***$p<.001$

<표 3>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특성	구분(N)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학습관련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총점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 취업	전업주부 (184)	2.29	.60	2.47	.60	2.75	.79	2.50	.47
	취업모 (88)	2.40	.53	2.55	.47	2.53	.49	2.49	.37
t		-1.52		-1.39		2.72**		.19	

**$p<.01$

<표 4> 자녀 성별에 따른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 지각의 차이

특 성	구분(N)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t
		M	*SD*	
자녀 성별	남아 (146)	3.31	.55	-2.09*
	여아 (126)	3.44	.51	

*$p<.05$

<표 5>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 성취압력의 차이

특 성	구분(N)	어머니 성취압력		t
		M	*SD*	
자녀 연령	만 4세 (46)	3.16	.51	3.10*
	만 5세 (112)	3.18	.50	
	만 6세 (115)	3.33	.56	

*$p<.05$

이러한 결과는 외동이나 둘째이하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첫째 자녀의 어머니는 유의하게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학습관련 스트레스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에 비해서 외동이와 첫째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가 비취업 전업주부인 경우는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 p<.01). 양육 스트레스 가운데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을 제외한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 지각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자녀의 성 변인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아에 비해 여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남= 3.31, 여= 3.44, t=-2.09, p<.05). 즉,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발달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며 다른 또래들에 비해 발달이 빠르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표 4> 참조). 한편, 자녀의 성별을 제외한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 성취압력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와 5세에 비해 만 6세 아동의 어머니는 더 높은 성취압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연령을 제외한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및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이 양육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제시되듯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의 변인들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3개 하위영역 및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r=-.16, p<.01,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r=-.33, p<.001, 학습관련 스트레스: r=-.18, p<.01, 스트레스 총점 r=-.28, p<.001).

즉, 자녀가 발달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발달이 빠르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가 적은 경향이며, 자녀의 발달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느린 편이라고 지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학습과 연관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성취압력 변인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운데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r=.16, p<.05), 학습관련 스트레스(r=.28,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r=.20, p<.001)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나 학습과 연관되는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 양육에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어려움이나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자녀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어머니의 성취압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의 변인과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변인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자녀의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취업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고, 2단계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어머니의 성취압력 변인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자녀의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여부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독립 변수들 간에는 공차와 분산팽창요인계수인 VIF값이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표 6> 양육 스트레스,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간의 상관관계 (N=275)

	양육 스트레스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 지각	성취압력
	자녀기질	자녀관계	학습관련	스트레스 총점		
1. 자녀기질 스트레스	-					
2. 자녀관계 스트레스	.37***	-				
3. 학습관련 스트레스	.32***	.31***	-			
4. 양육 스트레스 총점	.75***	.67***	.81***	-		
5.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 지각	-.16**	-.33***	-.18**	-.28***	-	
6. 성취압력	.16*	-.01	.28***	.20**	-.05	-

*p<.05, **p<.01, ***p<.001

<표 7>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N=275)

	양육 스트레스															
	자녀 기질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학습 관련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총점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자녀 출생순위	-.07	-.08	-.07	-.09	.03	.05	.04	.06	-.09	-.10	-.10	-.11	-.05	-.08	-.05	-.08
어머니 취업	.13	.11	.18	.14	.09	.09	.12	.12	-.21	-.16**	-.15	-.16*	.00	.00	.05	.05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17	-.16**			-.30	-.33***			-.18	-.16**			-.22	-.28***
성취압력			.20	.15**			-.01	-.01			.34	.27***			.18	.20***
F	2.50		5.44***		1.34		9.72***		4.86**		10.69***		.85		9.73***	
R^2	.02		.08		.01		.13		.03		.14		.01		.13	

*p<.05, **p<.0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 자녀의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취업 변인을 투입하였는데, 자녀의 출생 순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모든 영역 및 총점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변인은 학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력(β=-.16, p<.05)을 나타내었고, 학습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양육 스트레스 영역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R^2값이 6~12% 정도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β=-.16, p<.01)과 성취압력(β=.15, p<.01)변인이 유의하였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변인(β=-.33, p<.0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학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β=.27, p<.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β=-.16, p<.01)과 어머니의 취업변인(β=-.16,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 발달에 대해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 학습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 총점에 대해서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β=-.28, p<.001)과 성취압력(β=.20, p<.001)의 순서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특히,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양육 스트레스의 3개 영역 및 총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린 편이거나 강점이 없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학습과 연관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다. 한편,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과 연관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높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영역에 따라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나 상대적 영향력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과 성취압력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며, 각 변인들의 연관성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동이나 둘째 자녀의 어머니 보다 첫째 자녀의 어머니가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데,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가운데 자녀 기질관련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자녀의 어머니가 외동이나 둘째 이하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 결과(송미혜, 2006)와 일치하며,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박성

옥, 199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출생순위 보다는 형제수를 관련변인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영임과 구현영(1995)에 의하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외동이 보다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형제 중에서 어린 자녀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첫째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첫째 자녀가 실습 아이(practice child)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장자녀나 독자녀인 경우에 차자녀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윤영애, 1988; 장은경 등, 1998)를 통해 볼 때 어머니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를 높게 갖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더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해 어머니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경감 및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학습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가운데 학습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습관련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난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변인에 따라서는 학습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송미혜, 2006; 안지영, 2003), 전업주부 어머니의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 과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며 드려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교육문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내용(엄선희, 2002)과 같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주로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외국의 어머니들이 주로 자신의 심리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신숙재, 1997).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가 어린 나이일 때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장은경 등, 1998), 주변의 교육열과 경쟁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업주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녀의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특성을 규명하는 시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유우영 등, 1998), 본 연구의 대상이 만 4~6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 한정되므로, 유아기 시기 내에서는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서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발달을 더 빠르거나 강점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남아에 비해 여아의 사회적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병림, 1988)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연관이 된다고 보인다. 자녀의 성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 목표, 행동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Okagaki & Divecha, 1993), 이는 사회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만 4세에 비해 6세 아동의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홍은자(2001)의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 성취압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시기에 가까울수록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압력을 갖게 되어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성취압력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발달 영역에서 특별한 강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또래의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린 편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이 늦다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학습과 연관된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총점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부모-자녀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Mash & Johnston, 1990; 정지연, 2002에서 재인용; McGillicuddy-De Lisi, 1985)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자녀 발달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갖고, 현재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실제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 영역 가운데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학습관련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고 나타난 결과(안지영, 2003; 유주영, 2007)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며 성취압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성취압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부모는 다른 부모나 자녀와의 비교와 경쟁, 보상심리 때문에 자녀에게 학업과 경쟁을 강조하며, 때로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자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노나 거부를 표현한다고 한다(박수자, 1996). 또한 어머니의 과도한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류연자, 1995; 홍은자, 200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어머니 개인의 양육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영역에 따라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상대적 영향력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 총점에 대해서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변인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학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취업,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그리고 성취압력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가운데 어머니의 취업 변인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 어머니의 경우 양육에서 자녀의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과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 발달에 대한 지각과 성취압력 등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 또는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발달이나 능력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나 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업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게 경쟁에서 앞서도록 성취를 강조하고 실제로 이를 위한 압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가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유치원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나 요인을 개방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 내용도 나타난다(이경숙 등, 2000). 또한, 자녀의 학업 성취결과가 다른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요소가 된다는 보고도 있다(유주영, 2007). 이러한 내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 수준 자체 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측면도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어머니의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Abidin(1992)은 스트레스 모델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내적 모델을 설명함에서 부모의 신념 체계나 인지적 평가 과정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성취압력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과 같은 어머니 개인 내의 인지적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변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개입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과도한 성취압력을 가지거나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 자녀 발달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 지각을 갖도록 도움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측정한 척도의 문항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어머

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내용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어머니 면접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른 연령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초등학교 연령 및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성취압력 및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에 중점으로 두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다양한 관련 변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 및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으며,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성취압력과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이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희경 ·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2(2)**, 41-55.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7.

김명희 · 신화식(2001). 다중지능에 의한 부모-교사의 유아 잠재능력 평가간의 인식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2(4)**, 33-50.

김희진(1995).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노정애(199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문적 자아개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임 · 구현영.(1995). 5-8세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응, **대한간호학회지, 25(3)**, 485-495.

박성연 · 케네스 루빈(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박성희(1987).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8(1)**, 65-82.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외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미혜(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연숙 · 김영주(2007). 양육 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연구. **아동교육, 16(4)**, 107-117.

송연숙 ·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9-111.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우영 · 최진아 ·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유주영(2007).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애(1988).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 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숙 · 염현경 · 신윤오(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11(1)**, 70-78.

이병림(1988).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은경 · 박은혜 · 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전춘애 ·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정명숙(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07-121.

정유미 · 김혁곤(200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상담학회지, 1(1)**, 1-22.

정지연(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

유아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자(2000). 어머니의 성취 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Crnic, K. A.,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Goodnow, J. J.,(1984). Parent's ideas ab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L. Brown & B. Rogott. (Eds). *Advance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Hillsdale, NJ: Erlbaum.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al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Th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99.

McGillicuddy-De Lisi, A. 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e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7-24).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4, (pp.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Okagaki, L., & Divecha, D. J.(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접 수 일 : 2009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07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10일